



23일 새벽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나이지리아 간 월드컵 본선 3차전을 응원하던 시민들이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젠 8강이다”... 하나된 붉은 함성

### 광주서...여수서... 목포서... 신 새벽 응원 열기 이정수·박주영 골 터지자 대한민국이 들쭉

8년 전, 2002월드컵 4강 신화(神話)를 이뤄냈던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첫 원정 16강 진출 응원 신화가 만들어졌다.

22일 밤부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된 23일 새벽까지 하얗게 밤을 지새운 잠장 7시간의 월드컵 응원 드라마는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됐다.

22일 밤 10시,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붉은 악마 빨과 풍선막대, 응원나팔을 손에 든 1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열기가 달아올랐다.

이날 밤 11시 남아공 월드컵 A조 프랑스-남아공 경기가 시작돼 가로 10m·세로 4m의 스크린에 중계되자 시민들은 “대~한 민국”,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23일 새벽

에 펼쳐질 한국과 나이지리아 전 응원을 준비했다.

자정을 넘기고 마침내 23일 새벽 한국-나이지리아 경기가 시작되자 월드컵 경기장 응원전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6강 진출의 열원 달성을 위해 태극전사들이 한 치의 물러서지 않고 몸을 날리자 응원단들도 덩달아 달아올랐다.

경기 내내 빨간 상의에 빨 머리띠를 한 붉은악마들과 한 몸이 된 ‘올빼미’ 응원단은 남아공 더반 ‘모세스 마디바 스타디움’에서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일거수 일투족에 열광했다.

경기 내내 “공~공” 북소리를 따라 ‘Reds go together’를 열창한 응원단의 함성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다. 파도타기에서 꼭지

점 댄스까지, 밤을 잊은 응원 열기는 마침내 승리의 새벽을 열어젖혔고, 때맞춰 무등산에서 떠오른 붉은 태양도 기어이 이뤄낸 16강 진출을 축하했다.

16강 진출의 열원이 달성된 후에도 ‘붉은 악마’들은 곳곳에 모인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무박(無泊) 2일, 7시간의 응원 장정’을 마감했다.

23일 새벽 경기가 열리는 동안 대부분의 광주·전남 주민들도 한국-나이지리아 경기 중계를 뜬 눈으로 지켜보다 낭보가 울리자 환호성을 터뜨렸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 소식은 직장인들의 출근길과 학생들의 등굣길에서도 유쾌한 화제로 떠올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반 38분 기성용의 프리킥을 동점골로 연결한 이정수(왼쪽)가 박주영에게 뛰어가며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년만의 설욕전 “우루과이 나와라”

다음 상대는 우루과이다. 26일 밤 11시 포트엘리자베스 벨스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맞붙는 우루과이는 A조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조 1위를 차지한 만만치 않은 남미의 강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위로 47위인 한국보다 한참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지금까지 4차례 맞붙어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한차례, 친선경기 3차례 만난 우루과이는 한국에 4승을 거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히 우루과이가 한 수 위인 셈이다. 그러나 원정 16강에 처음 오른 상승세를 잘 살린다면 ‘못 넘을 산’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네 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우루과이는 그러나 원래 수비보다는 공격이 좋은 팀이다. 남미에선 20경기를 하는 동안 30골을 몰아쳐 브라질(33골), 칠레(32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

간판 공격수는 디에고 포틀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포틀란은 올해 폴럼(잉글랜드)과 치른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혼자 두 골을 넣으며 맹활약했고 리버풀(잉글랜드)과 준결승 원정 2차전에서도 연장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시즌 막판 매서운 발끝을 뽐냈던 선수다.

이번 대회 남아공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도 혼자 두 골을 몰아치는 등 상승세가 돋보이는 포틀란을 어떻게 묶느냐가 우루과이와 16강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대결이 ‘20년 만의 설욕전’이 된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 0-1로 분패했던 기억 때문이다. 성인 대표팀 경기는 아니지만 1983년 6월 멕시코 청소년대회 8강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청소년 대표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긴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당시에도 우루과이를 꺾고 ‘4강 신화’를 썼던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도 우루과이를 제물로 ‘원정 8강’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팬들의 열원이 간절하다.

/연합뉴스

### 광주월드컵 경기장 표정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쥔 23일 1만여 명이 모인 광주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붉은 물결로 출렁였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정문 광장은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서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편의점은 경기 허기를 채우려는 붉은악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두근·머플러 등 응원도구를 파는 노점은 찾는 발길이 뜸해 대조를 이뤘다. 이곳을 찾은 1만여 명의 시민 대부분이 이미 응원도구를 준비해온 탓이었다.

### “4강인들 못 가겠느냐” 즐거운 비명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붉은 야광 빨의 물결로 장관을 이뤘다. 야구장 바닥과 스탠드까지 가득 메운 1만여 시민들은 다 함께 애국가 소리 높이 부르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최강(27·북구 문흥동)씨는 “조금이나마 화면을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일찍 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어 놀랐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원을 보내는데, 16강, 아니 4강인들 못 가겠느냐?”라며 16강 진출을 기원했다.

○~한국-나이지리아 경기가 시작되기 전 새벽 1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좌석 곳곳에서는 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새 우잠을 자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승연(23·남구 주월동)씨는 “집에서 자고 나오려다 아예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불까지 들고 이곳에서 눈을 붙였다”면서 “한국팀 경기 전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는 바람에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